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30 >

오늘 트로잔스의 선발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베테랑 흥민혁. 이에 대항하는 램스의 선발은 오늘 1군에 등록돼 올라온 권기찬입니다.

트로잔스, 램스. 불과 4~5년전만 해도 항상 상위권에 있던 팀들이었죠. 그런 팀들이 이렇게 중하위로 떨어진 데에는...

뭐 작년까지 트로잔스의 감독이었던 제 임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역시 세대교체 실패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현재 트로잔스는 5위, 램스는 6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유철수 위원님. 오늘 경기는 어떤 점에 주목하며 보면 좋을 까요?

네, 양 팀 모두 중하위권의 성적이지요?

그렇군요. 세대교체 중요하죠.

물론 두 팀이 세대교체에 문제가 생긴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램스는 모기업 경영악화로 갑자기 많은 주전들이 타팀으로 빠져나가버렸으며, 트로잔스는 대형 FA들을 마구 영입하며 많은 유망주들을 보상선수로 보내버렸었죠.

아, 그러니까 램스는 유망주를 키울 시간이 없었고, 트로잔스는 유망주 자체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인가...

솔직히 유망주 키우는데는 철수 감독만한 감독이 없지 않나요? 실제로 이제는 전국구가 된 선수영도 철수 감독 작품이라 할 수도 있고..

김단장님. 왜 이번에 철수 감독하고 재계약 안 했나요?

하하. 저희야 철수감독은 너무 비싸서... 거짓말.

에고가 강하고, 프런트와 타협하지 않는 유감독이 부담스럽기 때문 아닌가요?

재계약에 실패한 젊은 감독이 비싸봤자요.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죠.

유망주 키우기 급급한건 그쪽도 마찬가지였을텐데 왜 이번에 새감독을 뽑으며 유철수 감독을 영입하지 않았죠?

이제 감독 혼자만이 야구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어요.

지금부터는 프런트 야구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활짝 열어 펼치려는 것은 바로 당신과 나!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K클래식의 미래, 문태국·문지영의 앙상블

●문태국&문지영 듀오 리사이틀 | 6월15일 오후8시 | 서울 LG아트센터

2014년 파블로 카잘스 첼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첼리스트 문태국(사진 왼쪽), 2014년 제네바 콩쿠르와 2015년 부소니 콩쿠르에서 역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사진 오른쪽)의 듀오 리사이틀이 열린다. 20대 초반에 이미 독주자로서 눈부신 성취를 보여준 두 사람이 콩쿠르 우승 이후 진정한 음악가로 성장하기 위한 첫 무대를 함께 한다. 1부의 문은 문태국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가장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는 '모음곡 3번'으로 연다. 이어 문지영이 슈만과 바흐, 부소니의 작품을 연주한다. 2부에서는 두 연주자가 함께 베토벤의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첼로 소나타 3번'을 들려준다. K클래식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연주회이다.



서울국제음악제 '미션임파서블' 무료 콘서트

●SIMF오케스트라의 미션임파서블 | 5월28일 오후 2시 |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음악가들의 용기와 도전정신으로 이뤄진 서울국제음악제의 '미션임파서블'이 무료로 열린다. 폴란드 출신의 지휘자 피오트르 보르코프스키의 지휘 아래 드보르작의 '로망스', 작곡가 류재준의 신작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한다. 일리아 그린폴츠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 연주되는 드보르작의 '로망스'는 극한의 아름다움으로 관객의 귀를 사로잡을 듯, 류재준의 신작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은 이와 대조를 이룬다. 그린폴츠와 백주영이 환상적이 호흡으로 세계 초연한다. 지휘자 피오트르 보르코프스키는 2013년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구 바로크합주단)와의 연주로 서울국제음악제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심포니커 등 다수의 명문 오케스트라에서 정기적으로 초청지휘하고 있다. 서울국제음악제는 관객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전석 무료로 공연을 진행한다. 누구나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522-4185)

목관 오중주 '바이츠 퀀텟' 첫 국내 공연

●목관오중주 '바이츠 퀀텟' 콘서트 | 6월16일 | 서울 LG아트센터

함경(오보에), 김한(클라리넷), 조성현(플루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목관 연주자들이 모여 탄생한 목관 오중주 '바이츠 퀀텟'이 국내 첫 공연을 개최한다. 바이츠 퀀텟은 2015년 덴마크에서 열린 칼 닐센 국제 실내악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유럽 관악계의 셋별로 급부상한 팀이다. 10대 시절부터 함께 공부한 함경과 리에 코야마(바순), 그리고 이들의 오랜 친구인 조성현, 김한이 뜻을 함께 해 2012년 결성됐다. 이후 포르투갈 출신의 리카르도 실바(호른)가 가세해 오중주 팀으로 완성됐다. 팀 이름은 '바이츠(Veits)'는 나무 또는 숲을 의미하는 옛 독일어로 이들이 처음 함께 연주한 독일의 한 성당 이름이기도 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목관 오중주의 대표적인 곡으로 꼽히는 칼 닐센의 '목관오중주 작품 43',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사무엘 바버의 '섬머뮤직 작품31', 단치의 '오중주 2번 g단조 작품56'을 연주한다. 공연에 앞서 독일에서 녹음한 첫 앨범도 발매된다. 이번 공연은 6월12일부터 7월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과 LG아트센터에서 열리는 2016 디토 페스티벌 '디토 프렌즈'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새음반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

'역사상 최악의 소프라노'로 알려진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의 앨범이다. 1868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젠킨스의 노래를 처음 접한 청중들은 그녀의 기막힌(?) 노래 실력을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한다. 비평가들은 구체적인 비평을 피하는 대신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라며 오히려 그녀를 치켜 올렸다. 젠킨스의 목소리는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점점 더 유명해졌다. 그녀의 음반이 처음 발매된 건 SP시절이지만 훗날 BGM(현재의 소리 클래식)의 골드 실 마크를 달고 재발매됐다. CD에 담기에는 턱없이 녹음분량이 모자랐는데 마침 이 앨범의 콘셉트에 매우 부합하는 또 다른 연주자들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제니 윌리엄스와 토마스 번즈 커플이었다. 이들은 음반사의 유혹(?)에 넘어가 이 앨범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고 한다. 마지막 13번 트랙에는 마담 젠킨스의 전속 반주자였던 피아니스트 코즈 맥문과의 1954년 영어 인터뷰가 실려 있다.



뉴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베스킨라빈스, '꽃보다 라이언' 출시

베스킨라빈스가 카카오 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의 얼굴을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만든 신제품 '꽃보다 라이언' (사진)을 새롭게 선보인다. 베리베라스트로베리, 블루베리치즈케이크, 바닐라의 3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부드럽고 달콤하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다 먹고 나면 숨겨져 있던 라이언 이모티콘이 나타나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권장소비자가격은 1만9000원.



선데이토즈, '애니팡' 전국 순위제 도입

선데이토즈는 모바일게임 '애니팡'의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하는 전국 순위제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순위제는 카카오톡 기반 친구

들로 구성된 기존 순위와는 별도로 게임을 설치해 즐기는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위 시스템이다. 선데이토즈는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매주 수요일 정오를 기준으로 1~3위를 기록한 이용자들에게 유료 재화인 토포즈를 선물하는 전국 순위 도입 이벤트를 6월 1일까지 진행한다.

매일유업 애플슈트, 카카오스토리 오픈

매일유업의 유아식 전문 브랜드 애플슈트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로 애플슈트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aeilabsolut)를 오픈하고, 기념 이벤트를 6월 22일 까지 진행한다. 애플슈트 카카오스토리에서는 모유, 분유 등의 유아식 정보, 육아고민상담, 육아



꿀팁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애플슈트는 이번 카카오스토리 오픈을 기념해 6월 22일까지 애플슈트 소식을 구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애플슈트 카카오스토리의 소식반기를 하고 댓글을 남긴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대이승 청소기, 백화점 상품권, 매일유업 유음료, 초콜릿 등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쌍용차, 폴 포츠에 체어맨 W 카이저 지원



쌍용자동차가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 폴 포츠의 방향에 맞춰 플래그십 세단 체어맨 W 카이저(사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영국 출신의 테너

폴 포츠는 25일 개최되는 제11회 제주포럼 축하공연 무대에 설 예정이다. 체어맨 W 카이저는 웰빙시트 등 내·외관에 고급스러운 소재를 적용해 감성품질을 향상시켰다. 핵심 편의사양인 AVN(Audio, Video and Navigation)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상품성을 높였다.

KT, 귀뚜라미와 IoT 업무협약

KT는 귀뚜라미와 23일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사옥에서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사진)을 체결했다. 귀뚜라미는 KT가 구축한 소물인터넷(LTE-M) 전국망 서비스와 IoT 플랫폼인 IoT Makers를 통해 가정용 보일러에만 적용하던 IoT 서비스를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통합 관리 및 고객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

정이다. KT는 IoTMakers 제공은 물론 통신 모듈 공급과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에 협조한다.

LGU+, 케이웨더와 공기 정보 제공 협력

LG유플러스는 케이웨더와 공기 측정망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협력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실외 환경 요소를 365일 관측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공기 관리 솔루션 '에어가드 K OAQ 스테이션(사진)'을 출시한다. 공기질 측정기로는 최초로 LTE 기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소음과 유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총 5개의 센서를 탑재해 실외환경을 측정한다. 측정값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PC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